"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복지 데스크

지적장애인과 함께 한 나주의 문화재 나들이

나주문화원, 지역 사회복지시설 원생들 초청 문화재 체험

"영산강 풍경 만끽하고 문화·자연이 주는 감성 향기 느껴"

영산강을 기반으로 한 2천년 문화의 향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나주의 가을은 특별했다.

그동안 지적장애로 조선의 향기와 근현대 역사문화가 어우러지는 '조선의 도시 나주'를 제대로 보지 못한 장애인들이 모처럼 생생문화재를 통해 뜻깊은 나들이를 시작한 것이다.

나주문화원(원장 최기복)은 지난 19일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부활의 집과 성산원의 원생들을 초청해 생생문화재 체험 '조선의 도시 달빛에 물들고 쪽 빛에 취하고'를 실시, 나주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40여명의 지적장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나주의 역사문화를 알고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갔다.

오전 9시 금성관에서 시작한 생생문화재는 우리나라 3대 반으로 유명한 김춘식 무형문화재 소반장을 찾아 직접 나주반을 만들어보는 체험과 다시면 복암리고분전시관 견학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 나주를 알고 역사를 알게 되어 좋았다"며, 박수를 치면서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어, 시원한 가을바람이 살랑대는 영산강 황포돛배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었다.

참여자들을 인솔한 사회복지사는 "이번 생생문화재에 참여하길 참 잘했다"면서 "우리 원생들이 영산강의 풍경을 만끽하고 물살을 가르는 돛배에 기대어 옹기종기 모여 서로의 느낌을 나누는 모습에서 우리 문화와 자연이 주는 감성의 향기를 느꼈다"고 말했다.

나주생생문화재는 9월 21일과 28일에도 이어진다. 참여문의는 061)332-5115로 하면 된다.

보성군 보성읍 "생활 불편, 복지기동대에 맡겨주세요"

보성군 보성읍(읍장 문경률)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불편 개선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와 함께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보성읍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4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우리주변 어려운 이웃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복지기동대는 단순한 생활불편 사항인 전등 교체부터 방충망 교체, 도배 장판교체, 지붕 차양 수리 등 소규모 주거 개선사업까지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며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A씨는(90세) 지붕차양이 낡아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이 마루로 들어와 불편했는데 복지기동대의 도움으로 말끔하게 수리를 마쳤다.

임영서 복지기동대장은 "앞으로도 기동대회원들과 꾸준히 봉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았어요"

담양 금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홀몸노인 · 장애인가정 밑반찬 전달

담양 금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병규, 민간위원장 최랑암)에서는 24일 '사랑의 밑반찬 꾸러미 나눔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금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4명은 장조림 등 밑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홀몸노인, 장애인가구 등 25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밑반찬을 전달받은 서모 할머니는 "적적한 일상에 누군가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반가운데 반찬까지 가져다주니 정말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랑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우리 위원들의 따뜻한 손길이 더해져 맛도 영양도 훌륭한 밑반찬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과 장애인가구에게 건강하고 든든한 한 끼가 되길 바란다"며 "소외계층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을 지속적으로 나눠가겠다"고 말했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인 김병규 금성면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주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지역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홀몸노인 집수리 봉사, 밑반찬 지원, 각종 복지용품 지원, 초등학생들에게 붕어빵을 전달한 '희망나눔, 행복나눔 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휠체어 타고 부산 해운대 가볼까?"

한국관광公, 열린관광지 12곳 늘어

"모든 관광객 이용 무장애 관광지"

2022년까지 총100개소 확대 예정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지역자치단체와 함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시흥 갯골생태공원, 동해 망상해수욕장 등 '열린관광지' 12곳을 올해 새롭게 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열린관광지는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관광활동에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를 말한다.

이번 12곳이 조성 완료됨으로써 전국의 열린관광지는 총 29개소로 늘었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열린관광지에는 주차장, 매표소, 화장실 등에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했으며, 점자 가이드북 등 홍보물을 비치해 편의성을 제고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 기존 족욕체험장에 휠체어와 유모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시흥 갯골생태공원의 염전체험 공간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차를 제작해 생태공원 구석구석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사는 가을 여행주간(9.12~29)을 맞아 각 지역의 지체장애인협회와 협업해 총 3회에 걸쳐 열린관광지 나눔여행을 진행한다.

특히 오는 26~27일엔 휠체어장애인 전윤선 작가가 동행해 여행에서 겪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등 참가자들과 활발한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석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장은 "열린관광 환경 조성 확대를 위해 전주 한옥마을, 남이섬 등 24개소를 올해 추가로 선정했고, 오는 2022년까지 1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관광취약계층이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에 대한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